

# 하도급 계약 10건중 6건 표준계약서 없다

### 메일·구도로 위탁...불공정 행위 발생해도 구제 어려워 어음 결제 평균 110일...법정 기일보다 50일 더 걸러

#### 중소제조업 500사 실태조사

# 자동차 타이어 부품을 납품하는 제작 업체 A사는 원정업체의 단가 인상 약속을 믿고 주문물량을 제작하기 위해 공장을 확장했다. 하지만 실제 협상에서 단가 인상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자 태도를 바꿔 그동안 주문 물량을 축소하고 제작 기간이 장시간 걸리는 고난도 물량만 발주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했다. 이를 지키지 못하자 기존 물량 보상 금액도 지급해 주지 않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90~120일까지 늦어지기도 한다. 만기는 평균 60일로, 수취기간과 만기를 합한 총 수취기간은 90일이 넘어간다. 하지만 법정 어음할인료는 당연하게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비용 등 현금이 필요한 부분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해결하는 등 회사를 어렵게 유지해 오고 있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소기업연합회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 계약 10건 중 6건(58.2%)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6건 중 4건(41.1%)은 발주서·메일 또는 구도로 위탁이 이루어져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

우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제조업체들도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원사업자의 의무행위 위반사항으로 서면발급 의무 위반(54.2%), 선금금 지급 의무 위반(37.3%)을 꼽고 있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계약에 필요한 정보가 사전에 원활히 공유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하도급거래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5.6%로, 2016년 11.2%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의 평균 수취기간이 현금 33.2일인데 비해 어음은 평균 수취기간 34.4일과 평균 만기 75.3일을 합한 총수취기간이 109.7일로 법정 대금 지급 기한보다 약 50일이 더 걸렸다. 또 납품일 기준 60일을 초과해 어음결제가 이루어질 경우 법정할인료를 지급해야하나 이를 받지 못하는 업체가 70.9%에 달해 어음결제에 따

른 금융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자체부담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에 지급받는 하도급대금의 결제수단별 비중은 현금(현금성 포함) 77.9%, 어음 21.8%였다.

또 제조원가가 오른 업체는 10곳 중 5곳(49.8%)인데 비해, 납품단가가 오른 업체는 10곳 중 2곳(17.8%)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에 느끼는 제조원가 인상 압박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중소기업정책본부장은 "하도급 불공정행위는 계약체결 단계에서 계약조건이 원활히 공유되지 않거나 협의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산 등을 통해 거래 당사자 간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시켜야 한다"며 "중소제조업체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여음제도에 대해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 코스닥150 신규 편입한 13개 종목 주목 최근 급등 제약·바이오주 버블우려 확산

지난 23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의 12월 정기변경을 발표했다. 피에스케이·코웰패션·미래컴퍼니·모디아노·비에이치·셀트리온헬스케어·필어비스·이녹스첨단소재(이상 기술주섹터) 제일홀딩스·네이처셀(필수소비재) 에스엠코어·유니스(산업재) 에코프로(소재) 등 모두 13종목이 편입됐다.

이중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신규편입이지만 최근 주가급등으로 셀트리온이 거래소로 이전 상장하게 되면 편입과 함께 코스닥시가총액 1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신규편입시 공모 상장과 함께 호연수원 대주주지분을 제외한 시가총액의 30%만 반영되더라도 약 3조5000억원이 반영되어 지수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12월 코스닥150지수 편입종목에 관심이 높아진 것은 금융당국이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주요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의 코스닥과 중소형주 투자확대를 겨냥해 12월 코스피·코스닥 통합한 대표지수(코스피200 65~70%, 코스닥150 30~35%를 반영한 KRX250 지수) 신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 초 거래소 이전상장에도 이번 편입한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온이 내년 초 이전상장하면 현재 코스닥150지수

를 추종하는 ETF는 1조7000억원 수준인데 셀트리온을 대체할 수 있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신라젠, CJE&M 에 수혜가 예상된다.

최근 급등한 코스닥시장에 대해 경계감이 커지고 있고 특히 제약·바이오주가 급등하면서 버블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필자도 언급하였지만 최근 코스닥 제약·바이오주에 편중된 급등양상은 단기적 투기심리와 수급에 따른 과잉반응이라 할 수 있으며 현시점에서 추가적인 급등가능성은 제한적이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코스닥시장 활성화에도 부정적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코스닥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상승을 이끌었던 제약·바이오주의 급격한 조정보다는 숨고르기 속에서 실적과 성장성을 보유한 전기차·신재생에너지·중국소비주·엔터주 등으로 순환매를 보이며 코스닥시장에 지속적인 투자자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정계두 <유니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 광주은행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출시

#### 전남도 1000명 선정 매달 10만원씩 3년간 지원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지난 10월 23일 전남도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거주하는 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을 출시했다.

앞서 전남도는 1일부터 10일까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신청자 모집공고를 진행, 심사를 거쳐 전남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 1000명의 가입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의 가입기간은 36개월이며, 적용이율은 연 2.30%로 대상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적립하면 전라

남도에서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과 전라남도 지원금 360만원을 합해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을 통해 지역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이 당당하게 미래를 꿈꾸고 자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광주은행은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금융지원 서비스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벤츠의 질주...수입차 국내 판매 첫 6만대 돌파

#### 단일모델 첫 3만대 판매 신기록 세운 'E클래스'가 주도

2002년 한국에 진출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이하 벤츠코리아)가 2017년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수입차 시장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작년 6월 출시된 신형 E클래스를 앞세워 한국 진출 수입차 브랜드 가운데 처음으로 연 판매 대수가 6만대를 돌파했고, E클래스도 단일모델로는 첫 '연 3만대 판매' 기록을 세웠다.

26일 벤츠코리아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벤츠 코리아가 한국에서 판매한 차량은 6만대를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 5만6343대를 팔아 수입차 브랜드 연간 최대 판매 기록을 세웠던 벤츠코리아가 1년만에 스스로 자신의 기록을 갈

아치우고 '연 판매 6만대' 고지까지 차지한 것이다. 지난해 6월 22일 출시된 E클래스 완전변경(풀체인지) 모델이 '벤츠 질주'를 주도하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통계상 올해 1~10월 E클래스는 한국 시장에서 2만8492대가 팔렸다. 월 평균 2849대꼴이다. 이달에도 큰 이변이 없었기 때문에 11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3만대를 웃돌 것이 확실시된다. 수입차 한 모델의 연간 판매량이 3만대를 넘는 것은 한국 수입차 시장 역사상 E클래스가 처음이다.

벤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도 올해 한국 시장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벤츠코리아는

지난 4월 선보인 SUV '더 뉴 GLC 쿼페'를 포함해 현재 국내에서 7가지 SUV 모델을 판매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이들 SUV 판매량은 998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4%나 뛰었다.

다른 나라 시장과 비교해도 한국 내 유별난 벤츠 인기 현상은 두드러진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벤츠의 한국 누적 판매량(5만8060대)은 중국·미국·독일·영국에 이어 5위를 달리고 있다. 작년 말 한국 시장의 순위는 8위였는데, 우리나라 벤츠 구매량이 많았던 일본(6위), 이탈리아(7위), 프랑스(8위)를 올해 들어 모두 제쳤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최종 순위도 5위로 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처음으로 연간 한국 벤츠 판매량이 일본을 앞지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6	18 31 34 38 45	20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946,487,625	9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9,586,356	49
3	5개 숫자일치	1,426,347	2,047
4	4개 숫자일치	50,000	96,821
5	3개 숫자일치	5,000	1,585,617

#### 삼성전자 러시아서 7년 연속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삼성전자가 러시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로 7년 연속 선정됐다.

삼성전자는 26일 "러시아 시장조사기관 OMI가 매년 실시하는 브랜드 조사에서 일종 구분 없이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에 2011년부터 올해까지 1위 자리를 지켰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러시아 내 인구 10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보시비르스크 등 13개 도시의 총 1천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통해 진행됐다.

삼성전자의 뒤를 이어 아디다스, 나이키, 애플, 소니, 코카콜라, LG, 보쉬, 자라(ZARA), 필립스 등이 '톱 10' 내에 들었다. 특히 삼성은 선호도 조사에서 19.0%의 득표율로, 2위 아디다스(10.5%)를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엄중별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도 생활가전 부문에서 2009년부터 올해까지 9년 연속 1위에 올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신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김철홍씨 임명

제54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김철홍(55·사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주택정책과장이 임명됐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정부 인사에서 김 과장이 신임 익산국토청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김 청장은 광주 출신으로 대동고와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장·국토교통부 기획특별도시과장·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주택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김 청장의 취임식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062-522-0482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